

1조 들여 '서남해안 경관 셋길' 만든다



신안 하트해변 국토부의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에 전남도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총 95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포와 신안, 무안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경관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4일 오후 신안 비금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하트해변으로 이름난 하늘의 해안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경관도로 등 모델 자전거·도보 이용 건강여행코스 개발 리아스식 해안·섬·갯벌 경관 빼어난 곳 연결 세계적 관광지로 전남도·목포시·무안·신안군 협력 국토부 공모 프로젝트 선정

전남도가 서남해 리아스식 해안과 섬, 갯벌 등 경관이 빼어난 곳을 연결해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 경관 셋길' (Scenic Byway)을 조성한다. 사업비가 959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경관 셋길은 서남해의 다양한 풍경을 접할 수 있어 제주 돌레길보다 훨씬 보고 즐길 거리가 풍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 공모 결과, 전남도와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이 연계협력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항구도시 목포, 섬의 수도 신안, 국내 최대 갯벌을 보유한 무안의

자연·역사·문화예술자산을 활용해 서남해안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연계해 길(경관 셋길)을 잇고,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도보 등)으로 건강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해안일주도로, 자전거·도보 탐방로, 항·포구 재생 사업 등이 연계 추진된다.

미국 경관도로(America's Scenic Byway), 스위스 모빌리티, 아일랜드 '타이더 타운', 일본 '오노미치 U' 등이 모델이다.

전남도는 '관광 전남'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낙후한 SOC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서남해안 주요 경관지와 관광자원을 잇는 '경관 셋길'을 조성한다. 국·도·지

방도보다는 임도·농로 등 셋길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는 숨겨진 경관자원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경관 셋길을 따라가다 만날 수 있는 우수 풍경 포인트를 선정하고, 이곳에 경관을 돋보이게 할 건축·조경 등을 결합해 조망시설을 설치한다. 추억을 남길 '풍경 뷰 포인트' (Scenic Spot)다.

이를 위해서는 국·도·지 단절구간인 안좌도-비금도 구간(4.8km), 하의도-도초도 구간(3.2km), 자라도-장산도 구간(1.45km)을 연결해야 한다.

또 서남해 일대에 조성된 자전거길, 도보 탐방로를 엮어 서남해안 경관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무동력 길' 명소도 개발한다. 차량 통행이 적고 섬 경관이 빼어난 신안읍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도는 자전거길을 신안-목포-무안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카누·카약 등 다양한 무동력 레포츠를 육성하고, 이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스위스 모빌리티를 벤치마킹했다.

연륙교 개통에 따른 쇠퇴 항구와 포구는

국토부 '어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복합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연안해상교통 준공영제 확대 시행, 해상택시(위그선) 등 새 해상교통수단도 발굴한다.

전남도는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등이 참여하는 '서남해안 명품경관육성 추진협의체'를 구성, 연계·협력한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로 95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관기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8995억원, 모빌리티 링크 스테이션 사업 429억원, 항포구 재생 사업 58억원, 서남해안다목적 경관 경작 사업 47억원, 농어촌 경관 개선 사업 53억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는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이라며 "첫 단추를 낀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 구상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 악화"

감사원 감사 결과 ... 환경단체 "죽산보·승촌보 해체해야"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수계에서는 일부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수계의 수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COD는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나타낸다.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다. 조류 발생 지표인 클로로필-a 농도 또한 4대강 사업 이후 나빠졌다. 하수처리장 고도화 등 수질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COD와 클로로필-a 지표가 악화한 원인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생태계 건강성 변화는 사업 전·후 모두

보통(C등급)으로 평가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사업 전(2006~2009년)과 후(2013~2016년)로 구분해 각각 4년간 관측한 자료를 이용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전·후 수질변화와 하천생태계 건강성 등을 분석하고자 이번 연구를 대한환경공학회에 의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영산강 수질 문제를 들어 4대강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결국 목적에 반하는 토목사업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흘러야 할 강물이 4대강 사업으로 갇히면서 수질이 되려 나빠진 사실은 수차례 검증됐다"며 "영산강이 흐르는 강으로서 자연 상태를 회복하도록 죽산보와 승촌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한빛원전 3·4호기 문제점 규명 책임자 문책"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 국민감사 청구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빛원전 3·4호기 문제점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4일 광주YM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감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감사 청구 취지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 3·4호기 증기발생

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상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빛원전 안전성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서울, 경남 김해 등 전국에서 400여명이 국민감사 청구인단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북경 신호운, 허겨운 예술가의 삶 ▶18면
러시아 월드컵 8강 확정
-인간계 최강 별들의 전쟁 ▶20면

완도 친환경 안전 해수욕장,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신지 명사십리	7.06 ~ 8.26
금일 명사십리	7.20 ~ 8.19
신지 동고	7.20 ~ 8.19
약산 가사	7.20 ~ 8.19
소안 미라	7.20 ~ 8.19
청산 신희	7.20 ~ 8.19
청산 지리	7.20 ~ 8.19
보길 예송	7.20 ~ 8.19
보길 통리	7.20 ~ 8.19
보길 중리	7.20 ~ 8.19
생일 금곡	7.20 ~ 8.19

생일 금곡 해수욕장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